

광주 하남산단 단열재 전문기업 (주)한국스치로풀

중국에 친환경주택 20만채 수출

MOU 체결… 내년부터 '제로하우스' 조성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입주한 단열재 전문기업인 (주)한국스치로풀이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주택 20만 채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주)한국스치로풀에 따르면 지난 10월 홍콩에서 중국의 진심(金心) 국제부자유한회사와 기술과 자본 투자에 대한 대규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본계약을 맺고,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슈블록'을 이용한 친환경 그린 하우스인 '제로하우스'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한국스치로풀은 그린 하우스인 '제로하우스'를 내년 1년 동안 중국에 20만 채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최근 모델 주택 2채를 조립식으로 세울 수 있는 인슈블록 등 건축자재 일

체를 중국 대량으로 보냈다.

25년 동안 단열재만을 생산해 온 (주)한국스치로풀이 제일모직(주) 등과 함께 개발한 단열재 합성블록인 '인슈블록'은 벽면재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1m²당 연간 난방용 기름 사용량이 1.5ℓ에 불과할 정도로 단열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인슈블록을 결합해 이번에 수출하게 될 '제로 하우스'를 나주와 함평에 시범 건립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 회사 김성모(60) 대표는 "이번 20만 채 수출로 300억~400억원에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주택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3년 안에 2조원 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당당히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주)한국스치로풀이 중국 수출을 위해 제일모직(주) 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단열재 합성블록인 '인슈블록'을 컨테이너에싣고 있다.

며칠 전

한편 김성모 대표는 올 초 제36회 상공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모범상공인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

며, 광주일보가 창사 57주년을 맞아 선정한 '뉴파워 57인'에 포함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

/연합뉴스

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0일

개선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20일

개선

20일